

# 김지완의 플랫폼 경영… 지역금융 넘어 디지털 강자로

〈BNK금융그룹 회장〉

## 디지털금융 시대

### BNK금융그룹

부산·경남은행 비내면 혜택 강화  
썸뱅크·투유뱅크 모바일 앱 개편  
빅데이터·AI 활용 고객패턴 분석  
셀프 브랜치 등 디지털지점 운영  
금융업무 85%, 고객이 직접처리



BNK금융그룹 김지완 회장.

BNK금융그룹이 고객중심의 디지털금융으로 전환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 발달에 따른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보이지 않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은 통합 디지털금융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잘 만든 디지털 금융 플랫폼 하나로 금융소비자에게 빠르고 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의존하던 지역금융의 한계도 벗어나겠다는 포석이다.

주력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도 사업전반을 디지털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모바일 금융 플랫폼을 개편하고, 영업점 운영방식에 디지털 기법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 ◆ 썸·투유앱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오픈뱅킹 시대를 맞아 부산은행과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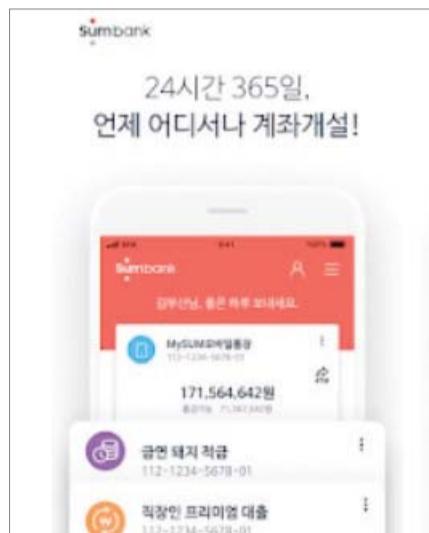
경남은행 투유뱅크 앱

남은행은 썸뱅크와 투유뱅크 앱을 개편해 비대면 거래 혜택을 강화했다.

부산은행은 모바일뱅킹 앱이나 썸뱅크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썸뱅크는 롯데카드와의 협업으로 금융과 유통이 융합된 서비스로 설계됐다. 카드를 이용하며 쌓아지는 각종 포인트로 적금 등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장점에 회원가입자 수는 9월 기준 10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부산은행은 썸뱅크에 무방문, 무서류 방식의 차별화된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을 담았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영업점 방문 없이 최신 스크래핑 기법



부산은행 썸뱅크 앱

을 활용해 최대 3000만원까지 즉시 심사가 이뤄진다. 대출 이용방식도 마이너스통장에서 할부상환방식까지 고객의 자금사정에 맞춰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도 부산은행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금융상품과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한 종합적인 금융관리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비금융자산 확대를 위한 지출 자산 통계 리포트도 제공한다.

경남은행은 투유뱅크를 통해 로봇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를 비대면 거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상 경남은행을 이용하는 외국인

소비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의 4개국어를 지원한다.

#### ◆ 통장·카드없이 생체인증… '미래형 점포' 확대

이들은 디지털 브랜치(Digital Branch)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브랜치는 은행지점을 통해 금융상품을 설명·판매 하던 형태와 달리 온라인을 기반으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지점을 말한다. 모바일과 태블릿 PC를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서류와 현금 사용이 줄고, 시간제약이 없다.

현재 부산은행은 셀프브랜치(Self Branch) 학장점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

트텔러머신(STM)을 이용해 은행지점에서 가능했던 금융업무의 85% 이상을 고객이 직접 처리하게 했다.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통장개설이 가능하고, 인터넷 뱅킹 신청과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경남은행은 11월 중 디지털 브랜치 1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업점에 손가락(지정맥) 인증시스템과 지능형 순번기(디지털 컨시어지),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디지털 사이니지) 셀프수납인 수도기 등 인프리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한다. 경남은행은 2020년까지 영업점의 80%까지 디지털 브랜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은행은 직원들이 수행하는 단순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RPA(로봇프로세스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지난 7월부터 캔비(KNB-BOT) 5대를 도입해 RPA 시스템 1차 사업 구축을 위한 업무 과정을 트레이닝해 왔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RPA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 외에도 더 많은 업무가 자동화될 수 있게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기업 여신심사자료 추출 서류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NH농협은행, 농촌 어르신들과 행복한 겨울동행

NH농협은행은 지난 11일 경북 영천시 영천농협에서 '2019년 말벗서비스 농촌어르신과 행복한 겨울동행'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대훈 행장(가운데)과 이만희 국회의원, 박종운 영천시의회 의장,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 농촌 어르신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농협은행

## 국민銀, 해외 특급송금 비대면으로 확대

리브, 스타·인터넷뱅킹 등서 가능  
채널 확대 기념 올 말까지 이벤트

KB국민은행은 'KB-웨스턴 유니온 특급송금' 서비스를 리브(Liiv), KB스타뱅킹,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했다.

'KB-웨스턴 유니온 특급송금'은 KB국민은행이 세계적으로 금융 유통망을 갖고 있는 웨스턴 유니온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외화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과 개인이다. 송금인이 한국에서 수수료 미화 5달러를 부담하면 해외 수취인은 별

도의 수수료 없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연중 24시간(외화예금)에서 출금 시 오전 9시에서 저녁 11시), 1일 최대 미화 7000달러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단 리브는 1일 최대 미화 3000달러까지다. 외국인 고객은 처음 한 번은 영업점을 방문해 송금 정보를 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KB-웨스턴 유니온 특급송금' 서비스 이용채널 확대를 기념해 올해 말까지 해외송금 고객들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이지앤파스트(Easy & Fast)! 비대면 KB-웨스턴 유니온 특급송금' 이벤트를 실시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 KEB하나銀, 베트남 1위 은행 2대주주로

### BIDV社 1조 지분투자 성사 전략적 투자자 지위 취득 신 남방 전략 본격화 기대

KEB하나은행이 베트남 자산규모 1위 은행의 2대 주주가 됐다.

KEB하나은행은 베트남 자산규모 1위 은행이자 4대 국영상업은행 중 하나인 BIDV(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의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 지위를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10월 말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의 승인을 받아 BIDV가 발행한 신주 6억 330만 2706주를 주식 취득일 환율을 기준으로 1조 148억원에 인수해 총 15%의 지분을 취득한 2대 주주가 됐다. 대표적 신남방 국가인 베트남에서 국내 은행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적 지분투



KEB하나은행은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BIDV의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 지위 취득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왼쪽부터), 판 뚜 뚜 BIDV 이사회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레 응옥 람 BIDV 은행장 대행.

/KEB하나은행

자를 통해 향후 신남방 전략이 본격화 될 것으로 KEB하나은행 측은 기대하고 있다.

BIDV는 기존 베트남 중앙은행이 95.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 증권 ▲ 보험 ▲ 리스 ▲ 자산관리 등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베트남 최대 자산규모의 국영상업은행이다. 1957년에 설립된 BIDV는 지난해 말 연결기준

총 자산 규모 66조 3000억원, 당기순이익 3809억원을 시현했다. 비엣콤뱅크(Vietcom Bank), 비엔틴뱅크(Vietin Bank), 아그리뱅크(Agri Bank)와 함께 현지 4대 상업은행으로 꼽힌다.

KEB하나은행은 전략적 투자자 지위 취득을 기념해 지난 11일 하노이 현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 기업銀, 내년 상반기 혁신 창업기업 모집

### 'IBK창공' 3개 센터서 60개社 선발

IBK기업은행이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創工)'의 2020년 상반기 혁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으로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마포·구로·부산 3개 센터에서 각 20

여개씩, 총 60여개 기업을 최종 선발한다.

육성 기간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이다. 기업은행은 선발기업에게 공유오피스 형태의 사무공간, 1대1 멘토링,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을 선별해 최대 5억원의 직접투자와 후속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육성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마포 센터'는 N15파트너스, '구로 센터'는 씨엔티테크, '부산 센터'는 선보엔젤파트너스와 협업한다.

IBK창공은 창업기업이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창업육성 플랫폼으로, 지난 2017년 12월 IBK창공 마포를 개소한 이후 구로·부산을 포함한 총 3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다.

/나유리 기자